

평양의 특이한 가로수풍경 (3)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는 느티나무들

공화국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느티나무들이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손꼽히는 역사 유적의 하나로 해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려진 석왕사의 느티나무도 있다. 석왕사에는 600여년전부터 자란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끝까지를 따라 느티나무

들이 하늘을 메우며 울창한 숲을 이루고있다. 개성시에 있는 역사유적 고려성균관앞마당에서 자라는 느티나무도 1000여년이나 자란 국내에서 가장 큰 느티나무들중의 하나이다. 느티나무는 고산지대와 벌방지대, 마을과 길가

비롯하여 어디서나 잘 자라는 생활력이 강한 나무이다. 또한 꾀고 무늬가 고와 견축, 가구, 배, 조각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있다. 느티나무는 일정한 높이까지 미끈하게 자라다가 가지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면서 닭모양을 이루는데 가지와

잎이 많고 그 모양이 아름다와 정자나무로도 불리워왔다. 피야별이 내리쬐이는 삼복철인 요즘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는 느티나무들이 평양의 거리들에 우거져 수려한 풍치를 한껏 돋우고있다. 특히 평양역앞에서부터 창광음식점거리의 양옆으로

수종이 좋은 느티나무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은 볼수록 이채롭다. 공화국에서는 이처럼 관광용으로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쓸모가 큰 느티나무를 많이 심어 거리와 마을,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러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활발히 벌어지는 음악정보봉사활동

공화국의 하나음악정보센터에서 특색있는 정보기술제품들을 개발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음악정보자료를 봉사하고있다.

방대한 음악정보자료를 수집, 분류, 구축한데 기초하여 수많은 음악다매체편집물들을 제작하고있는 하나음악정보센터에서는 최근에만도 풍부성과 편리성, 다기능성이 보장된 다양한 음악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품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류다른 관심을 모으고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하나음악정보센터 종업원들의 노력에 의해 음악정보봉사활동은 더욱 다양하고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세면기나 수도꼭지를 깨끗하게 닦는다. 소금과 식초를 섞어 탁이 많은 말끔히 지워지면서 깨끗해진다. -목은 쌀의 냄새를 없앤다.

전날 저녁에 식초물에 쌀을 씻어 놓는다. 아침에 이

-남비에 뿌려준다. 새로 산 남비를 그대로 사용하면 음식물이 늘어붙기 쉽다. 사용하기 전에 식초를 한방울 떨어뜨려 사용하면 음식물이 라는것을 막을 수 있다. 본사기자

식초 한방울의 힘

쌀을 한 번 더 미지근한 물에 행군 다음 밤을 지으면 목은 쌀냄새가 사라진다.

본사기자

사화

왜적을 치자 (1)

글 김정민, 그림 리성일

정미년, 1907년 7월 그믐께의 어느날 밤이었다. 왜놈들의 강요에 의한 《정미조약》의 날조로 한양강안이 한동안 소란스럽더니 이 며칠째는 저스기 평온한 날이 흘러가는상실였다. 그러나 어머라 없이 긴장한 저기압이 무겁게 호르고 있었다. 삼복철의 지저운 밤, 달빛을 동진 검군복차림의 한 사나이가 종로거리를 걷고있었다. 그는 시위대(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왕의 호위를 위하여 조직된 군대) 대대에 군복을 둔 관관 권기홍이었다. 고개를 지수구하고 걸어가 그의 입에서는 가끔 탄식같은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군복앞에는 풀이헤쳐졌고 처녀들의 허벅에 매달린 칼집은 땅에 깔렸다. 특별히 어디를 정하고 걷는 걸음이 아니었다. 피로고 울적한 기분을 가실길 없어 방향없이 내친 걸음이었다. 방금전에 그는 고향에서 아

버지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국운이 쇠진해지니 가운데저 기술어진다고 쓰기 시작한 편지는 자자구가가 가슴저미는 소리로 가득찬것이었다. 왜놈상품이 들어밀리는 바람에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다 세금은 파종하고 빚독촉은 성화같이 온 식솔이 운명을 걸고있던 가계방을 끝내 단아버렸다. 호구지책을 잃어버린 가족이 눈물로 날을 보내는데 집안의 가강한 정상을 보듯못해 너둥생이 서툰돈에 팔려 이인으로서 양나라에 끌려갔다. 이제에는 온 식솔이 기홍이 하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것, 그레 회담편지를 받으면 도성으로 떠나겠다는사연이었다. 이 소식은 그에게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었다. 몇푼 안되는 군복은 내 혼자 씌움에도 오히려 모자라는데 온 가족을 어떻게 먹여살리랴... 자기 어깨에 실리는 너무도 큰 부담에 권기홍은 가슴이

답답했다. 「나리-」 누군가 찾는 소리에 그는 번뇌에서 깨어났다. 「인력거를 탑소.」 늑수그레한 인력거군이 그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러나 권기홍은 말없이 걸음을 내질렀다. 「나리, 직선하는셈치구라.」 눈이 까만 새끼들이 벌써 며칠째 굶고있다. 인력거군은 가족이나 울적하던 권기홍의 심사를 더 못혀주었다. 약한자의 우는소리... 어찌면 이렇게 지리리 못난 인생들뿐인가. 「령감, 어데 가서 농사나 짓지 왜 한양바다에서 빈둥거리요?」 역중어린 그의 말에 인력거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랬으면 어복 좋겠사와유. 통산에 몇마지기나마 땅이 있있걸 읍사년에 왜군에게 뺏기구 이 노릇을 하지유.」 「통산에요?」 하고 되묻은

권기홍은 걸음을 주춤거렸다. 통산, 너무도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 이태전 《을사5조약》이 날조되던 해인 1905년 8월초였다. 왜군은 한양의 통산일대로부터 한강구역까지를 군용지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서 온지 3천여걸을 락탈하였을뿐만 아니라 천여호의 살림집을 헐고 백수집계의 무덤을 마구 파헤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출지에 생계를 잃고 한지에 나앉게 된 통산과 한강구역의 수천명 농민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옛새동안이나 왜놈헌병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왜놈들의 강박에 시위대도 그들의 진압에 내몰리었다. 권기홍이 없아버리는 농민들을 흠여지라고 총대를 내뒀을 때였다. 갖을 쓴 수염 허연 체소한 늑은이가 앙상한 손으로 그의 목질을 짊 움켜잡았다. 「이놈, 깨도 제 집을 지켜 도적질 무는데 너희놈들은 저 강도같은 왜놈들과 한 짝이 되어 동족을 죽여! 이, 이 개만도 못한 놈들!...」 수염을 우들우들 떨던 로인의 머리맡에 기상이 지금과 같고 하면서 잡은 의병들을 눈앞에서 볼 때마다 더욱 깊어갔다.

그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새롭게 느끼게 되었다. 자기는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인가. 조정과 군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것이 군인의 본분이며 여국충정의 길이라고 믿고 있던 그로서는 자못 심각한 느낌이 아닐수 없었다. 이 느낌은 《을사5조약》대역부도죄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목을 잘리우는 최후순간까지 왜적을 치고 해국노를 처야 한다면 그들의 절규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하면서도 저주로운 검정군복을 벗어던질 용단은 내리지 못하였다. 어쨌든 나라를 지킬 군대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번민과 울분으로 모래길 때마

구슬픈 창가소리에 자못 심란해진 그는 영혼각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에익, 독한 술로 이 울화통을 삭이자. 나뭇베용은 술이란 약자의 객기를 위해 서만 사용될는 물건이라 했다가지만 술 아니면 못 견디겠구나.」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영혼각양으로 발길을 돌리던 권기홍은 그때까지 자기곁에서 걸고있는 인력거군에게 지레 몇장을 꺼내주었다. 「아니?...」 「내가 타고온셈치구 받아두요.」 「고마와유, 나리. 밖에서 기다리겠어유.」 권기홍은 로리집에 들어가서 한고향래생으로 자בח한 사이인 최화화를 찾았다. 향화는 어느때건 그의 기분을 리해하고 위로해줄줄 아는 녀자였다. 그런데 오늘은 웬 일인지 시무룩한 기색이었다. 수심 어린 두눈을 차붓이 내리든 채 에들장난감만 만지작거리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삼촌네가 해삼위로 떠났어유. 종매(손아래 4촌누이)들을 줄려고 산 이 장난감은 사용없이 됐어유.」 향화의 두눈은 호르렸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요? 왜 우리 참아안만 할까요? 우리 이 장난감보담두 못해요?》 향화는 만지작거리던 오토기를 자빠뜨렸다. 그러나 눈이 동그란 오토기는 흔들거리며 다시 일어났다. 「이것 이름이 뭘지 아세요?」 「오토기지 무어야.」 「아니, 점포아바기가 그러는데 오토기라지요. 나 오자. 홀로 독차, 실 립자... 내가 독립하겠다고 오토오토 일어서는게 얼마나 장해요?」 이렇즈음 마당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미담이밖에서 송구스리워하는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 나리...」 분명 늑은 인력거군의 목소리였다. 권기홍은 문을 열고 마루에 나섰다. 「나리, 저 왜병정이 자꾸 타구가고 못살게 굶니다유. 나리를 모실려구 그 만큼...」 인력거군을 밀어제끼며 양바탕한 키에 어깨가 되바라진 왜놈 오장놀이 기홍의 앞에 다가섰다. 역한 술내가 풍겼다. 「구루마 당신이나 타고 왔는가?」

